

임금을 향한 그리움

아침 해가 뜨는 곳 조천(朝天). 그리고 해를 맞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세워진 조선 중기의 정자. 제주에 살던 많은 이들이 이 정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임금을, 떠나온 가족들을 그리워했다. 연복정이라는 이름처럼 애절한 그리움이 가득하다.



조함해안로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56-2 ~ 조천읍 함덕리 산6-6(약 6.5km)

신복로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596 ~ 조천읍 북촌리 1646-3(약 7.2km)

신흥로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230-5 ~ 조천읍 신흥리 63(약 0.6km)

함덕로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9 ~ 조천읍 함덕리 산14-13(약 0.5km)

평사길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산14-1 ~ 조천읍 함덕리 250-6(약 0.3km)

북촌3길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03 ~ 조천읍 북촌리 1465(약 0.5km)

조함해안로 | 연북정

조함해안로는 제주도 동북쪽 마을인 조천과 신흥, 그리고 함덕의 해안을 지나는 해안도로이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육지와 제주를 잇던 포구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조천리 해안에는 연북정이라는 이름의 정자가 있다. 1590년 이옥 절제사가 조천관을 다시 고쳐서 지으면서 ‘청산도 푸르고 녹수도 푸르러서 쌍쌍이 푸르다’라는 의미로 쌍벽정(雙碧亭)이라 부르다가 1599년에 보수를 하면서 연북정(戀北亭)으로 바꿨었다. 연북정은 유배를 온 사람들이 한양에 있는 임금을 그리며 사모의 심정을 보낸다는 뜻이라고 한다. 유배인들은 고단한 유배생활에서도 정자에 올라 임금이 있는 북쪽 바다를 바라보며 언젠간 왕이 자신을 다시 찾아주리라는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바람이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해배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내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유배지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다.



연북정

연북정은 중국 진나라 때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를 찾은 서복과도 관련이 있는 곳이다. 서복은 동남동녀를 이끌고 중국에서 출발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먼 바닷길을 무사히 도착한 것을 하늘에 감사하며, 제사를 올리고 조천(朝天)이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겼다고 한다. 그 이후 조천관 건물을 지으면서 그 비석을 땅 속에 묻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그래서 조천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이 이야기에서 찾기도 한다.

조함해안로를 따라 신흥리 바닷가에 이르면 모래 사장 위에 세워진 신흥리 방사탑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 안이나 해안가에 지은 방사탑들과 달리 모래 위에 만들어진 탑이고, 또 독특하게 여러 개가 연이어 세워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풍수지리상 기가 허해 방사탑을 세웠다고 한다. 물이 들어오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방사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북로(3·1만세로) | 3·1만세운동

신촌리에서 북촌리까지 이어지는 길인 **신북로**에는 제주항일기념관과 만세동산이 자리

하고 있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제주에서는 조천의 미밋동산에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사람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그래서 이 동산을 만세동산이라 부른다. 그러한 연유로 신북로에 3·1만세로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렇게 불붙은 항일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진다. 그 이후 조천지역에서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였고, 그들은 앞장서서 항일운동을 펼쳤다. 제주항일기념관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제주항일운동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애썼던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이 오늘 날까지도 전해지는 듯하다.



제주항일기념관

신흥로/함덕로 | 쇠물깍과 서우봉 해변

신흥로는 신북로와 조합해안로를 이어주는 길로 신흥리 마을을 지난다. 신흥리는 옛개 또는 왜포 등으로 불리던 마을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을 정리하면서 기존의 마을과 함덕리와 조천리 일부를 합쳐 ‘새로 흥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신흥리(新興里)라 했다. 신흥리 마을 안에는 바위구멍에서 솟아나는 쇠물깍이라는 용천수가 있다. 이 물은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아 생활용수로 요긴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신흥리와 이웃하는 함덕리의 명소는 서우봉 해변이다. 함덕리의 중심도로인 **함덕로**와 조합해안로가 만나는 곳에 있다. 푸른 바다와 서우봉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여름이면 관광객과 제주도민들로 북적인다. 겉으로 평화롭게만 보이는 서우봉 해변은 옛날 삼별초와 관군의 치열한 격전지였고, 서우봉에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만든 갯도진지가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평사길 | 조선 중기 와요지

함덕 서우봉 해변에 인접하여 조합해안로를 끼고 이어진 **평사길**은 평사동의 의미를 부여한 길이다. 평사동의 ‘와막팻’이라 불리던 곳에는 조선시대에 기와를 만드는 와요지가 있었다고 한다. 서우봉은 태풍이나 찬 북서풍을 막아 아늑하게 보호해 주었을 뿐 아니라 양질의 점토가 다량 매장되어 있어 기와를 생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

다. 여기서 만들어진 기와는 관아나 사찰, 집을 지을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촌3길 | 너븐숭이 4·3기념관



너븐숭이 4·3기념관

북촌3길은 북촌리 명칭을 반영하는 길이다. 이 길에는 북촌 너븐숭이4·3기념관이 있다. 북촌은 4·3의 화마에 휩쓸려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본 마을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무장대의 기습으로 북촌 인근에서 군인 2명이 숨지자 군인들은 북촌마을로 찾아와 마을 사람들을 학교운동장에 모이게 하고는 무장대를 색출한다는 미명 아래 집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을 인근의 밭으로 끌고 가 사살하기 시작했다. 다

행히 오후 들어 총소리는 멈췄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뒤였다. 마을 사람들은 집도 가족도 잃은 채 빈털터리로 이웃마을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그렇게 한동안 북촌은 죽음의 마을로 있어야 했다. 당시 후손이 끊긴 집안이 많아 한 때 무남촌(無男村)으로 불리기도 했다. 북촌리의 사건은 20년이 더 지나서야 현기영 소설가의 <순이삼촌>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숨죽여야 했던 마을 사람들은 4·3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때의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다.